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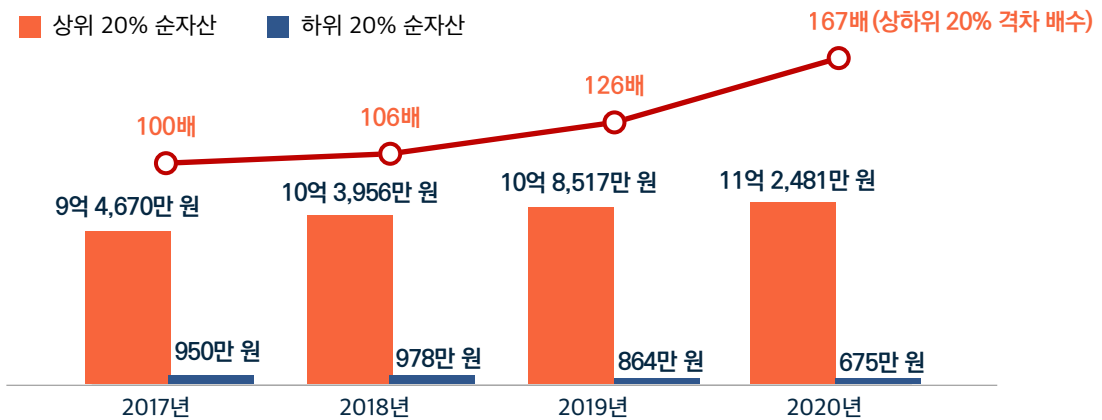
코로나로 인한 경제 양극화 현상



2020년 상위 20% 가구 순자산, 하위 20% 가구의 '167배!'

- 통계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'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'에 따르면, 순자산(총 자산 - 총 부채) 기준 '상위 20% 가구' 순자산은 11억 2,481만 원으로 2019년보다 4% 증가한 반면, '하위 20% 가구'의 순자산은 675만 원으로 2019년보다 22% 감소하여, 코로나19 기간 중 양극화가 더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
- 상·하위 20% 간 차이는 167배로 2019년보다 126배보다 더 벌어져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(상위 20% vs 하위 2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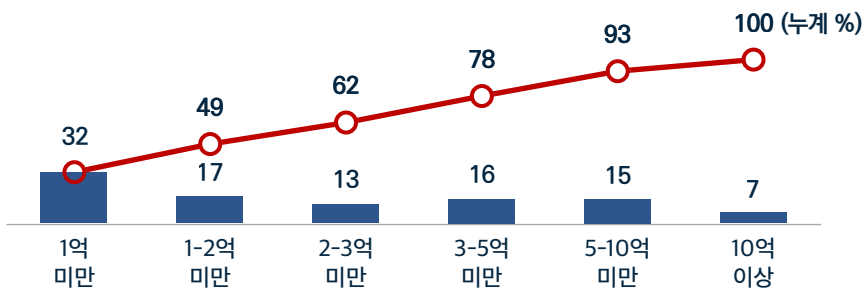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', 2020.12.17.(연도별 자료는 Kosis 통계 자료임)
 중앙일보, '벼락거지' 탄생시켰다, 정부가 확 벌려놓은 인생격차 2021.01.13
 (<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69131?cloc=Joongang-newsdigest-top>)
 ** 자산과 부채는 2020.3.31.일 기준, Note) 순자산 = 자산액-부채액

● 전체 가구의 62%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,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7%임

- 2020년 3월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'1억 원 미만 가구' 32%, '1~2억 미만 가구' 17% 등으로, '3억 원 미만' 가구가 전체 가구의 62%를 차지하며, '10억 원 이상 가구'는 7%로 나타났다.

[그림]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(2020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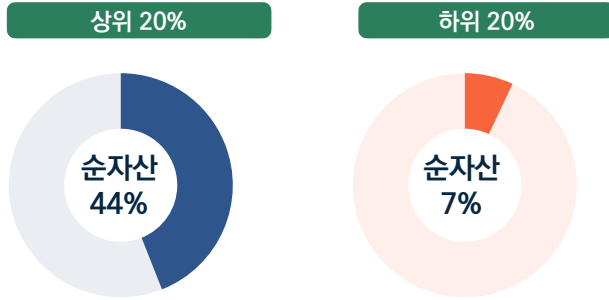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', 2020.12.1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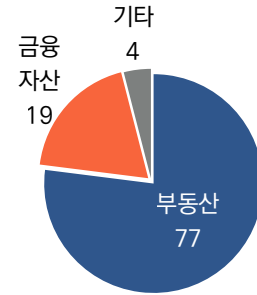
● '상위 20% 가구'가 전체 가구 순자산의 44% 차지!

- '상위 20%'가 보유한 순자산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44%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, '하위 20%'가 차지하는 순자산 비율은 7%로 나타났다.
- '상위 20%'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, '부동산'이 77%로 압도적이며, '금융자산'은 19%로 나타났다.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말하고 있다.

[그림] 2020년 가구당 순자산 점유율(상위 20% vs 하위 20%)



[그림] 순자산의 구성(상위 20%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', 2020.12.1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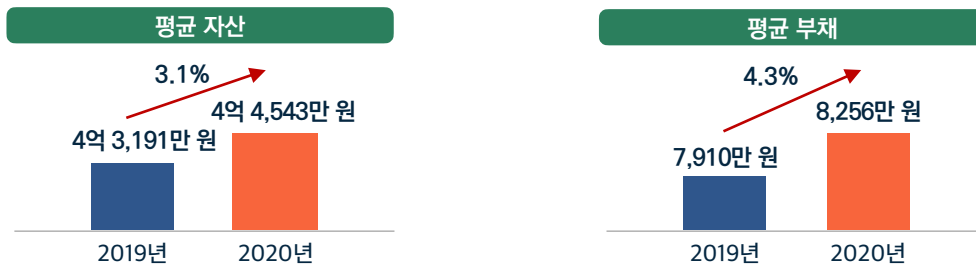
1.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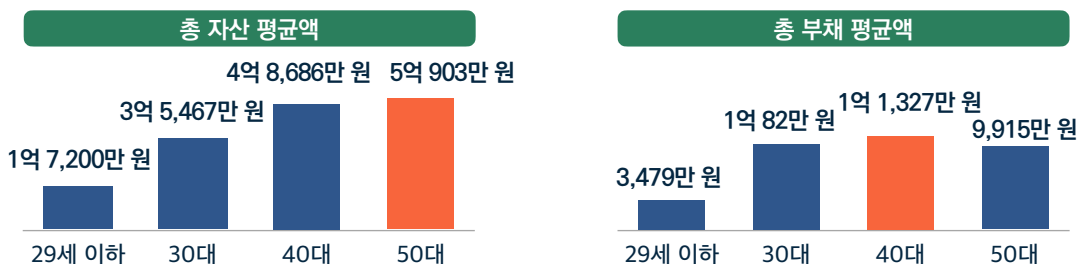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 3.1% 증가, 부채는 4.3%로 더 증가!

- 2020년 우리나라 가구의 '평균 자산액'은 4억 4,543만 원으로 2019년보다 3.1% 증가하였고, 가구 당 '평균 부채액'은 8,256만 원으로 역시 2019년보다 4.3% 증가했는데, 부채 증가 비율이 자산 증가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령별로 자산 보유액을 보면, '50대 가구'가 평균 5억 90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, 부채는 '40대 가구'가 평균 1억 1,3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.

[그림] 가구당 자산 보유액(2019 vs 2020)



[그림] 연령별 가구당 자산/부채 평균 보유액 (2020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', 2020.12.17.